

축성식과 축복식

사람이나 물건을 하느님께 봉헌하여 성스럽게 하는 것을 ‘축성’이라 하고, 이러한 교회의 의식을 ‘**축성식**’이라고 합니다. 즉 축성한 사람이나 물건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‘하느님의 소유’로 된다는 뜻입니다. 예를 들면, 수도서원을 하는 경우에는 사람을 축성하여 봉헌하는 것이므로 수도자는 곧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입니다. 또한 성당을 지어 축성식을 하게 되면 ‘하느님의 거룩한 집’이 되는 것입니다.

예전에는 ‘축복’이라는 말을 ‘하느님께 복을 비는 것’과 ‘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복’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해 왔으나, 현재는 축복과 강복을 구분하여 ‘하느님께 복을 비는 것만을 ‘축복’이라 하고, ‘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복’을 ‘강복’이라 합니다.

따라서 “**사제는 ‘축복’을 하고, 하느님께서 ‘강복’하신다**”라고 합니다.

‘축성’과 ‘축복’은 둘 다 준성사이지만 축성은 그 자체를 성스럽게 하는 것이고 축복은 은총을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. 즉, **축성은 ‘하느님의 소유’가 되지만 축복은 ‘예전의 소유자’가 그대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.** 그러므로 성물방에서 구입한 **십자고상이나 묵주 등은 축성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입니다.**

